해남군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 속도…정부예산안 반영

환경부서 총 사업비 450억 투입 4000㎡ 면적 조성할 계획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패널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 단지 조성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탄소중립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화, 판로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로,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3만 4000㎡ 면적에 조성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R&D(연구개발) 시설과 실증 테스트베드, 시험·인증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4년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하면서 사용 후 패널 발생량 또한 급증하는 추세로 2029년에는 전국적으로 6796t의 사용후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중립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재활용 및 재이용 기반 기술과 산업 육성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명현관 군수가 직접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찾아 국비 확보를 건의하고, 기본계획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유치 노력을 펼쳐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또 그동안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 21개소에 참여 의향조사와 협의를 진행해 와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대통령 전남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이 이번 정부 예산안 통과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 일번지 해남을 향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감도.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본격 추진

공간 협소 문제 해결,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관이 증축 공사를 통해 새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장흥군은 30일 노인복지관 공간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진행 제약을 해소하고자 8월부터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지어진 정남진장흥 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관내 어르신 300명가량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노인 복지시설이다.

최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흥군은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군은 현 노인복지관 건물을 지상3층(610.47㎡)과 지상 1층(41.15㎡)을 증축하고, 3층 증축 부분에는 대강당, 기존 2층 소강당은 프로그램실로 활용하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전복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힘쓴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 전복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 등

완도군은 경기 침체와 전복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전복 소비 운동 등을 추진한다.

먼저 완도군청, 완도군의회 및 각 기관·사회단체와 향우회 등이 참여하는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한다.

챌린지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시작으로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이 이어받아 완도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며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는 '1'가구당 전복 '1'kg를 '9'회 구입하도록 독려하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에 힘을 실어주고 군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다른 크기의 전복에 비해 적체되어 있는 전복 11미~13미를 판매하기 위해 「전복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을 추진한다.

판촉전은 군민과 향우, 완도군 주요 자매결연 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복 1kg를 29,000원, 2kg는 55,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복 주문은 한국전복유통협회(인터넷 또는 전화 주문 061-552-0913)로 하면 된다.

또한 군과 유관 단체에서는 전복 판매 행사 및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많은 사람들이 전복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복 소비 촉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군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서울시민 800여명 강진서 백중 방생 법회

도선사, 9월 2일 차량 20여대 분승
강진 백련사 인근 가우도서 법회

서울시민 800여명이 백중을 맞아 강진에서 방생 법회를 갖는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인 서울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9월2일 대형버스 20여대에 신도 800여명을 나눠 태우고 강진으로 와 방생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당일 강진에 도착 후 백련사 앞 강진만 가우도에서 조기 치어를 방생하고 지장기도를 올리는 법회를 연 뒤 백련사에서 참배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국보 제13호 극락전, 제313호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보물 제507호 선각대사편광탑비로 이름 높은 강진 무위사에 들러 역시 참배한다.

이번 방생 법회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 태원스님과 강진 백련사 주지 설도스님이 적극 나서 이뤄냈다.

도선사 관계자는 "강진 백련사와의 깊은 인연으로 이번 방생 법회를 마련했다"면서 "강진의 따뜻한 마음까지 가득 안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군 문화관광실 문예진흥팀 관계자는 "서울시민들이 강진으로 내려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신도들이 잠시 머무르는 백련사 주차장에 강진군수가 보증하는 '초록믿음 직거래 농특산물 판매장'을 임시로 마련해 이들을 적극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관내 6개 업체가 참여해 강진 쌀귀리, 생표고, 작두콩차, 연잎과자, 목이버섯, 자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140여명

진도군이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자치정책연구포럼 대표인 강정원 전문강사를 초청, '주민자치의 방향 · 주민자치회 전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리더로서 주민자치 위원의 기본 소양 ▲주민자치회 전환의 필요성 ▲주민자치 전환 준비 등을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진도=조상용 기자